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의 매개 효과

장 희 순[†]

용인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본 연구는 Arnett이 제안한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애정적, 거부적)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명확성, 그리고 성인진입기 특성 중 '가능성'과 '불안정' 차원을 통해 평가한 성인진입기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지방(경북, 대전, 강원) 소재 6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58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에 대해 SPSS 25.0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애정적, 거부적), 자기개념명확성, 성인진입기 인식(가능성, 불안정성)은 모두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애정적, 거부적) 각각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효과가 양쪽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인진입기 인식의 매개효과는 애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의 매개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애정적)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불안정)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 하는 경로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거부적)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불안정)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 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인진입기, 성인진입기 특성, 심리적 안녕감, 자기개념명확성, 부모양육태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희순, 용인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
로 134 / E-mail: hsjang@yongin.ac.kr

많은 연구자들이 산업화된 국가에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점차 지연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였고, Arnett(2000)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Arnett의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연령은 18~25세로, 이 기간 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등의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이 연령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다수가 대학생인 한국의 경우도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높은 대학 진학률에 비해 대학 졸업자의 낮은 취업률과 늦은 결혼 등으로 성인 진입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대학생들이 취업난과 과열된 경쟁 속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혼란과 방황을 겪거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적응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성인진입기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심리적 적응 수준 및 행복감 같은 긍정적 정서경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자신의 심리적 잠재력을 잘 발휘해서 자아실현과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나타낸다(Ryff, 1989, Deci & Ryan, 2008).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며 그로 인한 결과가 적응적임을 의미한다(이효진, 2017). 이 같은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생의 성공적 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지만(이은우, 2005; Morales-Rodríguez, Espigares-

López, Brown, & Pérez-Mármol, 2020), 대학생 시기는 발달단계 상 다양한 변화와 사회적 압력,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낮은 시기 중 하나이다(서경현, 2012; Stallman, 2010). 그런 점에서 대학생들이 성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위협 요인이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부정적인 요인의 영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개입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지도와 교육, 상담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는 가정 변인, 사회·심리적 변인, 개인변인 등 여러 가지가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개인이 태어나 성장하는 가족의 영향은 그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부모의 영향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유아동기는 물론 청소년기와 더 나아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쳐 지속된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이전에 비해 부모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의존이 줄어들긴 하지만,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는 성인진입기의 대학생들은 여전히 부모의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의존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부모의 영향은 지속된다. 여러 연구들에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확인되었다(문은식, 강승호, 2008; 박영신, 김의철, 2009; 서진숙, 이동혁, 2010).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친밀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통제와 애정이 적절하게 균형 잡힌 권위적 양육태도를 보

일 때, 청소년의 안녕감은 높게 나타났다(이정미, 이양희, 2007). 또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유경자, 2005) 반면,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김용희, 2012; 정주희, 2019).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증가한 반면, 과보호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곽운영, 정문자, 2010; 유영달, 이은지, 2010; Francis, Pai, & Badagabettu, 202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나 양육태도에 따라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이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가 보고한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뿐만 아니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도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였다(박지현, 이명조, 2012; 유영달, 이은지, 2010).

부모가 중요한 환경적 요인 가운데 하나라면, 대학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 역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 성격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자기개념(self-concept)은 자신에 대한 기억, 가치 특성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자기에 관한 지식 구조(Campbell et al., 1996)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 중 하나이다. 그동안 자기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정의, 분류되어 '자기정체감', '자기효능감', '자존감' 등과 동의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자기개념을 자신에 대해 갖는 평가적 차원인 내용

적 측면과 자기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범주화하여 조직화하는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Morrison & Wheeler, 2010). 내용적 측면의 자기는 흔히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포함하는 자기신념과 자존감 등이 포함되며, 구조적 측면의 자기개념에는 자기개념명확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자기개념의 내용적 측면인 자기효능감 내지 자기존중감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들 변수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수 축적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기개념의 내용적 측면 이외에도 구조적 측면인 자기개념명확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기개념명확성(self concept clarity; Campbell, 1990)은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의 정도, 자신에 관한 지식들 간의 내적 일관성과 시간적 안정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Campbell, 1990; Campbell & Lavelle, 1993). 자기존중감 같은 평가적 자기의 측면은 시간에 따라 좀 더 쉽게 변화하는 속성을 지닌 반면, 자기개념명확성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안연옥, 김병석, 김재철, 2014), 자기개념명확성은 평가적 자기의 측면과는 독립적으로 신경증과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 문제와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ampbell et al., 1996). 그리고 낮은 자기개념명확성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반면(Leite & Kuiper, 2008),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와 심리적 적응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수현, 2005; Bigler, Neimeyer, & Brown, 2001; Monica & Greg, 2001).

한편, 자기개념명확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상희, 서수균,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개념명확성의 관계를 살펴본 백승진(200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남녀 대학생의 자기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은 자녀의 독립성 발달을 저해하고 건강한 자기개념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경란, 김은정, 2019).

이처럼 선행 연구를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개념명확성은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개념명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라는 변인과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이라는 개인적 변인이 매개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며, 일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개념명확성을 거쳐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김중운, 이지혜, 2016; 이명조, 2013).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전통적인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청(소)년기라고 하는 발달적 시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이 맥락 내에서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Z 세대, 혹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청년들은 전통적인 발달심리학에서 정의했던 청(소)년기나 성인초기와는 다른 발달적 경로를 경험하는 만큼, 이들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들에 Arnett(2004a, 2004b)가 제안한 성인진입기 관점을 통합하여 확장하고자 한다.

Arnett는 성인진입기의 5가지 특성 차원으로, 연장된 '정체성 탐색(identification exploration)', '불안정(instability)', '실험/가능성(Experiment/possibilities)', '자신에 대한 집중(self-focus)', '중간에 끼인 느낌(a sense of feeling in between adolescence and adulthood)'을 제안했다(Arnett, 2004a, 2004b). '정체성 탐색'의 핵심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특징지어지는 특성으로, 정체성 형성이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진입기의 가장 중요한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Arnett, 2014; Erikson, 1968). '불안정'은 '정체성 탐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특성으로, 탐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과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동안 삶의 여러 측면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다. 객관적으로는 주거, 이성의 파트너, 직업에서의 지속적인 변화 등을 겪고, 이는 주관적으로 불확실성,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통해 경험된다(Arnett, 2014; Lanctot & Poulin, 2018; Luyckx, Witte, & Goossens., 2011). '가능성'은 성인진입기의 개인들이 삶의 경로가 열려 있는 만큼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능성의 시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는 것과 관련된다. '자신에 대한 집중'은 더 이상 부모로부터의 제한과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자족(self-sufficient)하고 독립적이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시도를 나타낸다(Arnett, 2014). '중간에 끼인 느낌'이란, 성인이 되기까지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듯한 '중간에 끼어 있는' 느낌을 갖는 것을 나타낸다.

성인진입기 특성이 여러 가지로 구별된다는 것은 개인마다 성인진입기가 상당히 다르

게 경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개인이 각 차원에 어느 정도나 동일시하는지 혹은 개인이 성인진입기의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개인차가 있음을 시사한다(Joel, 2020). 그리고 성인진입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인식 차이에 따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nctot & Poulin, 2018; Nelson, Wiloughby, Rogers, & Padilla-Walker, 2015). 구체적 예로, Reifman, Arnett와 Colwell (2007)의 연구에서 성인진입기 개인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삶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uyckx, De Witte, & Goossens(2011)의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의 '불안정' 특성 차원으로 평가한 지각된 불안정성은 자존감과는 부적 관계를, 우울 증상과는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불안정'과 '중간에 끼인 느낌'은 약물 남용이나 좋지 않은 정신 건강의 문제와 좀 더 관련된 반면(Lanctot & Poulin, 2018), '자신에 대한 집중'과 '가능성'은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었다(Negru, 2012). 즉, 성인진입기에 대한 개인의 인식 차이가 원인 변인이 되어 결과 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이나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수행된 한 연구(Schnyder, & Lane, 2018)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친밀 정도에 따라 성인진입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친밀함은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가능성' 특성과는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불안정' 특성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 특성이 자녀가 성인진입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

의 성인진입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진입기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개념명확성, 그리고 성인진입기 인식이 모두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인들로 가정되며,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자기개념명확성이 성인진입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가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자기개념명확성이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자기의 측면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조직화하고, 자기관련 정보를 처리하며, 자기개념과 외부정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백수희, 2002)고 한 점을 고려할 때, 자기개념명확성이 성인진입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자기개념명확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문제나 상황에 대해 더 불확실하게 느낀다는 선행연구(Leite & Kuiper, 2008)와 높은 자기개념명확성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 정보에 덜 몰입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자아에 대한 위협을 덜 느낀다는 연구결과(Nezlek, Plesko, 2001)를 고려하면, 자기개념명확성이 성인진입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 자녀의 자기개념명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개념명확성은 대학생의 성인진입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경로를 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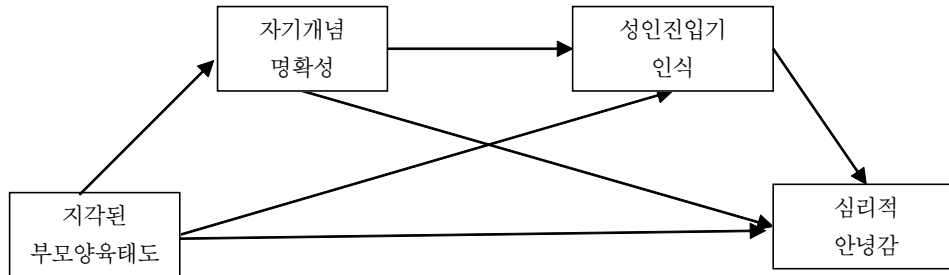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들이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성인진입기라는 새롭게 출현한 발달단계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성인진입기 특성 중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가능성’과 ‘불안정성’ 차원을 중심으로(Lancot & Poulin, 2018; Luyckx et al., 2011; Reifman et al. 2007)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애정적, 거부적), 자기개념명확성, 성인진입기 인식(가능성, 불안정),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애정적, 거부적)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이 매개하는가? 셋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애정적, 거부적)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성인진입기 인식(가능성, 불안정)이 매개하는가? 넷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

진입기 인식이 이중매개 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Arnett(2000a)의 정의에 따라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진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 소재 3개 대학과 지방에 소재(경북, 대전, 강원)한 3개 대학 재학생 약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교수의 허락과 학생의 동의를 받아 설문지를 배포한 뒤,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회수하였다. 전체 약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뒤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전체 358명(약 89.5%)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358명) 가운데 남학생이 165명(46.1%), 여학생이 193명(53.9%)이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 거주 학생이 160명(44.7%), 지방 거주 학생이 198명(55.3%)이었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77명(21.6%), 2학년 66명(18.5%), 3학년 92명(25.8%), 4학년 121명(34.0%), 무응답 2명(0.6%)이었다.

측정도구

심리적 안녕감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측정을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번안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수용(8개)', '긍정적 대인관계(7개)', '자율성(8개)', '환경에 대한 통제(8개)', '삶의 목적(7개)', '개인적 성장(8개)'의 6개 하위 차원, 총 4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1점(거의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총점을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 하위 척도들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는 .66~.7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69~.81 이었다.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Arrindell과 Engebretsen(2000)이 제작한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 단축형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EMBU-short) 척도를 문민정(2008)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자기보고식 검사를 사용하였다. EMBU 척도는 '애정(예: '뜻대로 일이 잘 안될 때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셨다.')

8개 문항, '거부(예: '아버지(어머니)는 명확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내게 화를 내시거나 불쾌해하셨다.')

7개 문항, '과보호(예: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셨다.')

8개 문항의 3개 하위 척도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

해 각각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과보호'와 관련된 요인은 그러한 태도가 '심리적 통제'나 '행동적 통제'나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이명조, 2013), 또한 한국청소년들의 경우 과보호가 관심과 돌봄 같은 긍정적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Kim & Choi, 1994)를 고려하여 '애정'과 '거부' 하위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두 하위척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응답의 합을 지각된 애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지각된 거부적 부모 양육태도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거의 드물게)~4점(대부분)'의 4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되어 있고, 각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양육이 더 애정적이거나 더 거부적인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애정'과 '거부' 하위 척도의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α 각각 .83, .78이었고, 아버지 '애정'과 '거부' 하위 척도의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α 각각 .85, .80이었다.

자기개념명확성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자기개념명확성 측정을 위해 Campbell 등(1996)이 개발한 자기개념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를 김대익(1998)이 한국어로 번안한 뒤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12개 문항으로 단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방식으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ampbell 등(1996)의 연구에서 내적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의 자기개념명확성 척도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성인진입기 특성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성인진입기에 대한 인식 확인을 위해 Reifman 등(2007)이 개발한 성인진입기 특성 목록(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IDEA)을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2011)이 우리말로 번안한 것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검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Reifman 등(2007)이 개발한 IDEA는 ‘정체성 탐색’, ‘불안정’, ‘자신에 대한 집중’, ‘가능성’, ‘중간에 끼인 느낌’의 5개 차원 31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불안정’ 차원(예: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7개 문항과 ‘가능성(예: 탐색을 하는 시기이다)’ 차원 5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성인진입기 특성을 나타내는 진술문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들은 각 진술문에 대해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상에 응답한다. 해당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진입기에 대해 더 ‘불안정’하고 더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인식을 의미한다. Reifman 등(2007)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는 .70~.85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과 ‘가능성’ 하위 차원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가 각각 .79였다.

자료분석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한 Cronbach α 산출과 연구문제 1에 대한 변인 간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위해 SPSS version 25.0을 사용하였고, 연구문제 2, 3, 4에 대한 확인과 매개효과들 간의 차이 검증 bootstrapping을 위해 SPSS macro PROCESS(<http://www.afhayes.com>)를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 표집은 5,000번으로 설정하고 95%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N=358$)

		심리적 안녕감	애정	거부	자기개념 명확성	가능성	불안정
	심리적 안녕감	1					
지각된 부모양육 태도	애정적	.41**	1				
	거부적	-.22**	-.40**	1			
	자기개념명확성	.54**	.29**	-.21**	1		
성인진입기 인식	가능성	.21**	.14**	-.08	.06	1	
	불안정	-.24**	-.10	.08	-.28**	.17**	1
	<i>M</i>	3.37	2.83	1.37	3.18	3.16	3.11
	<i>SD</i>	.44	.61	.43	.69	.51	.46

** $p < .01$

분석의 결과가 표 1과 같다. 심리적 안녕감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와는 정적 상관($r=.41, p<.01$)을 보였으나 거부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r=-.22, p<.01$)을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개념명확성은 정적 상관($r=.54, p<.01$)을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과 성인진입기 인식 중 '가능성'은 정적 상관($r=.21, p<.01$)을 보인 반면, '불안정'은 부적 상관($r=-.24, p<.01$)을 보였다.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기개념명확성 간에는 정적 상관($r=.29, p<.01$)이 나타난 반면,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기개념명확성 간에는 부적 상관($r=-.21, p<.01$)이 나타났다. 또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성인진입기 인식 '가능성'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14, p<.01$).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 중 '불안정'만이 유의한 부적 상관($r=-.28$)이 나타났다. 애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거부적 부모 양육태도 간에는 부적 상관($r=-.40, p<.01$)이 나타났고, 성인진입기 특성의 '가능성'과 '불안정' 간에는 정적 상관($r=.17, p<.01$)이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의 매개효과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모델 6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성인진입기 인식을 '가능성'과 '불안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의 매개효과.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가 다음의 표 2와 같다.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심리적 안녕감($\beta=.18, p<.001$), 자기개념명확성($\beta=.33, p<.001$)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beta=.10,$

표 2.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N=358)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F	R ²
심리적 안녕감	부모양육태도(애정적)	.29	.04	7.99***	63.78***	.16
자기개념명확성	부모양육태도(애정적)	.33	.06	5.49***	30.11***	.08
성인진입기 가능성	부모양육태도(애정적)	.10	.05	2.11*	2.89	.02
	자기개념명확성	.02	.04	.50		
심리적안녕감	부모양육태도(애정적)	.18	.03	5.48***	68.15***	.38
	자기개념명확성	.30	.03	10.25***		
	성인진입기 (가능성)	.13	.04	3.37**		

* $p<.05$, ** $p<.01$, *** $p<.001$

표 3.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358)

매개경로	effect	SE	LLCI	ULCI
총효과 (부모양육태도(애정적)→심리적안녕감)	.29	.04	.22	.37
직접효과				
부모양육태도(애정적)→심리적안녕감	.18	.03	.12	.25
총 간접효과	.11	.02	.07	.15
부모양육태도(애정적)→자기개념명확성→심리적안녕감(M1)	.10	.02	.06	.14
부모양육태도(애정적)→성인진입기(가능성)→심리적안녕감(M2)	.01	.01	.00	.03
부모양육태도(애정적)→자기개념명확성→성인진입기(가능성)→심리적안녕감(M3)	.01	.00	-.00	.03

$p < .05$)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기개념명확성은 심리적 안녕감($\beta = .30, p < .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13, p < .01$)을 주었다.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자기개념명확성,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 변인을 투입했을 때,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38%였다.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의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매개관계 별로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가 표 3과 같다.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12 ~ .25]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 각각의 단순 매개 경로(M1 & M2)는 95% 신뢰구간에서 각각 [.06 ~ .14]와 [.00 ~ .0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그리고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M3)는 95% 신뢰구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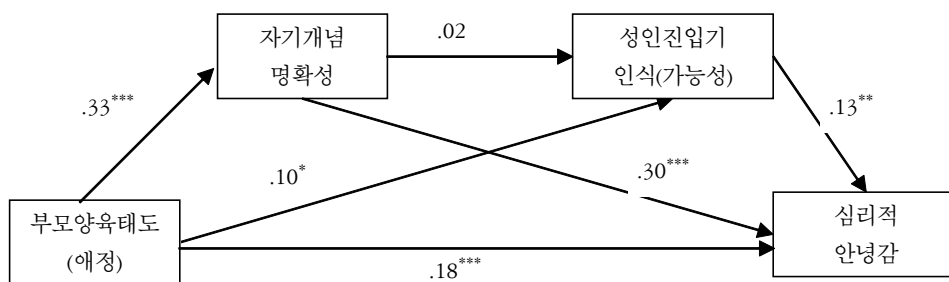


그림 2.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의 이중매개 모형

[-.00~.03]으로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두 단순 매개경로(M1, M2) 사이의 차이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04~.1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고,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자기개념명확성을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M1)의 크기가 더욱 컸다.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의 매개효과.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가 표 4와 같다.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심리적 안녕감($\beta=.19, p<.001$), 자기개념명확성($\beta=.33,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명확성은 심리적 안녕감($\beta=.28, p<.001$)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beta=-.19, p<.001$)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beta=-.09, p<.05$)을 주었다.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자기개념명확성,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 변인을 투입했을 때,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총 설명량은 37%였다.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매개관계 별로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가 표 5와 같다.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13~.26]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단순매개(M1) 효과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06~.13]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1~.01]로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

표 4.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N=358)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F	R ²
심리적 안녕감	부모양육태도(애정적)	.29	.04	7.98***	63.60***	.16
자기개념명확성	부모양육태도(애정적)	.33	.05	5.51***	30.41***	.08
성인진입기 (불안정)	부모양육태도(애정적)	-.02	.04	-.45	15.28***	.08
	자기개념명확성	-.19	.04	-5.14***		
심리적안녕감	부모양육태도(애정적)	.19	.03	5.77***	63.30***	.37
	자기개념명확성	.28	.03	9.21***		
	성인진입기(불안정)	-.09	.04	-1.96		

***p<.001

표 5.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358)

매개경로	effect	SE	LLCI	ULCI
총효과 부모양육태도(애정적)→심리적안녕감	.29	.04	.22	.37
직접효과				
부모양육태도(애정적)→심리적안녕감	.19	.03	.13	.26
총 간접효과	.10	.02	.06	.14
부모양육태도(애정적)→자기개념명확성→심리적안녕감 (M1)	.09	.02	.06	.13
부모양육태도(애정적)→성인진입기(불안정)→심리적안녕감(M2)	.00	.00	-.01	.01
부모양육태도(애정적)→자기개념명확성→성인진입기(불안정)→심리적안녕감(M3)	.01	.00	.0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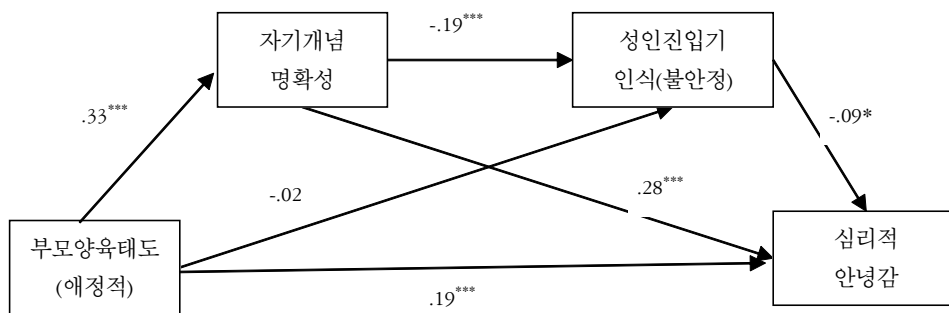


그림 3.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의 이중매개 모형

정' 인식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M3)는 95% 신뢰구간에서 [.00~.01]로 0을 포함하여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매개경로 (M1, M3) 사이의 차이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05~.1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고,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기개념명확성을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M1)의 크기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의 매개효과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모델 6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성인진입기 인식을 '가능성'과 '불안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의 매개효과.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가 표 6과 같다.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심리적 안녕감($\beta = -.12, p < .05$), 자기개념명확성($\beta = -.35, p < .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자기개념명확성은 심리적 안녕감($\beta = .33, p < .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15, p < .01$)을 주었다.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자기개념명확성,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 변수를 투입했을 때,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총 설명량은 33%였다.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표 6.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N=358$)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F	R ²
심리적안녕감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24	.06	-4.13***	17.05***	.05
자기개념명확성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35	.09	-3.90***	15.20**	.04
성인진입기 (가능성)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03	.07	-.45	.61	.00
	자기개념명확성	.04	.04	.89		
심리적안녕감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12	.05	-2.36*	54.93***	.33
	자기개념명확성	.33	.03	11.08***		
	성인진입기 가능성	.15	.04	3.68**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심리적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358$)

매개경로	effect	SE	LLCI	ULCI
총효과 부모양육태도(거부적)→심리적안녕감	-.24	.06	-.35	-.13
직접효과				
부모양육태도(거부적)→심리적안녕감	-.12	.05	-.21	-.02
총 간접효과	-.12	.04	-.19	-.05
부모양육태도(거부적)→자기개념명확성→심리적안녕감(M1)	-.12	.03	-.18	-.05
부모양육태도(거부적)→성인진입기(가능성)→심리적안녕감(M2)	-.00	.01	-.03	.02
부모양육태도(거부적)→자기개념명확성→성인진입기(가능성)→심리적안녕감(M3)	-.00	.00	-.0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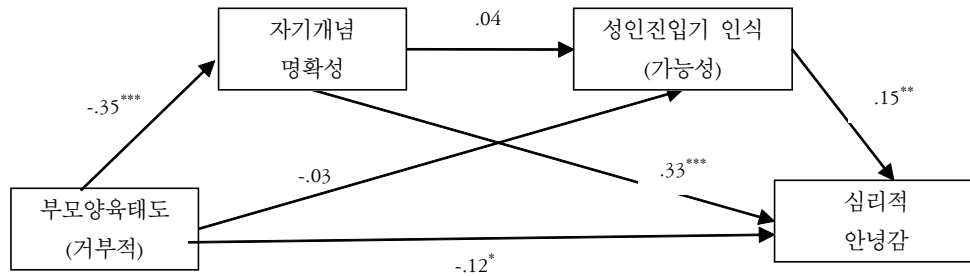


그림 4.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의 이중매개

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매개관계 별로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가 표 7과 같다.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21 ~ -.0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각각의 단순 매개 경로(M1 & M2)에 대한 검증 결과,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기개념명확성을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M1)만이 95% 신뢰구간에서 [-.18 ~ -.05]로 0을 포함하

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을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이중매개경로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의 매개효과.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가 표 8

표 8.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N=358)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F	R ²
심리적 안녕감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26	.06	-4.45***	19.80***	.06
자기개념명확성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38	.09	-4.15***	17.18***	.05
성인진입기 (불안정)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01	.06	.18	14.96***	.08
	자기개념명확성	-.19	.04	-5.29***		
심리적안녕감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13	.05	-2.63*		
	자기개념명확성	.31	.03	9.90***	50.01***	.31
	성인진입기 불안정	-.09	.05	-2.02*		

* p<.05, *** p<.001

표 9.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심리적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358)

매개경로	effect	SE	LLCI	ULCI
총효과 부모양육태도(거부적)→심리적안녕감	-.26	.06	-.37	.03
직접효과 부모양육태도(거부적)→심리적안녕감	-.13	.05	-.23	-.03
총 간접효과	-.12	.03	-.19	-.06
부모양육태도(거부적)→자기개념명확성→심리적안녕감(M1)	-.12	.03	-.18	-.06
부모양육태도(거부적)→성인진입기(불안정)→심리적안녕감(M2)	-.00	.01	-.02	.01
부모양육태도(거부적)→자기개념명확성→성인진입기(불안정)→심리적안녕감(M3)	-.01	.00	-.0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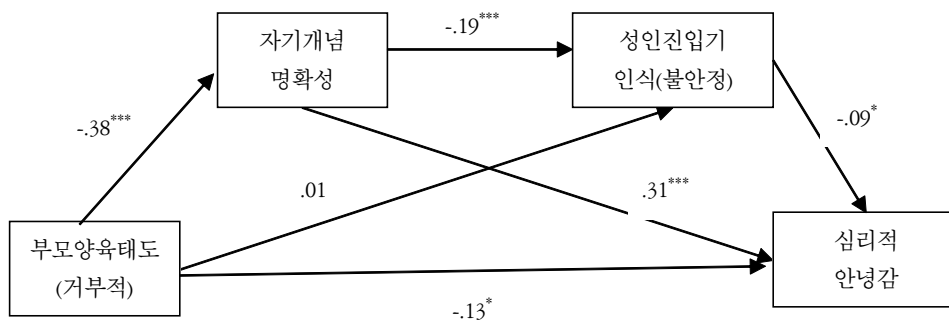


그림 5.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의 이중매개 모형

과 같다.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심리적 안녕감($\beta = -.13, p < .05$), 자기개념명확성($\beta = -.38, p < .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명확성은 심리적 안녕감($\beta = .31, p < .001$)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beta = -.19, p < .001$)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beta = -.09, p < .05$)을 주었다.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자기개념명확성,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 변인을 투입했을 때,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총 설명량은 31%였다.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매개관계 별로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가 표 9와 같다.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23 ~ -.0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의 단순매개효과(M1, M2) 검증 결과,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효과만이 95% 신뢰구간에서 [-.18 ~ -.06]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M3)는 95% 신뢰구간에서 [-.02 ~ -.00]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매개경로(M1, M3) 사이의 차이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05 ~ .17]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고,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기개념명확성을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M1)의 크기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논 의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이 흔히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Arnett에 의해 소개된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안선영 등, 2011). 국내에 성인진입기라는 개념이 소개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지만 성인진입기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심리적 건강과 안녕감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성인진입기 특성이라는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선행하는 변인들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개념명확성, 그리고 성인진입기 특성 중 ‘가능성’과 ‘불안정’ 차원을 통해 평가된 성인진입기 인식을 포함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가능성’과 ‘불안정’ 인식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거부적 양육태도는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정적,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반면, 거부적 양육태도는 심리적 안녕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것으로, 부모의 애정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연화와 강문희(2008)의 연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김은혜(2014)의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이 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다시금 확인된 것으로,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개입 시 부모와의 관계 문제를 함께 다룰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자기개념명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개념명확성이 증가하는 반면, 거부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개념명확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새롭게 투입된 성인진입기 특성 중 ‘가능성’과 ‘불안정’ 차원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가능성’ 인식은 심리적 안녕감과는 정적 상관을, ‘불안정’ 인식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Lane(2020)의 연구에서 성인진입기를 가능성의 시기에 동의하는 정도는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과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 그리고 불안정에 동의하는 정도는 심리적 웰빙과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인진입기에 대한 ‘가능성’ 인식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불안정’ 인식은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은 자기개념명확성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불안정’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개념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자기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자아에 위협이 되는 자극들에 더욱 민감하고 영향을 받는 반면,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위협적 상황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한 연구결과(김중운, 이지혜, 2016)를 지지한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기개념명확성, 성인진입기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

도가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개념명확성이나 성인진입기 인식과 같은 또 다른 개인내적 변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고등학생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밝힌 서진숙과 이동혁(2010)의 연구에서 부모의 신뢰, 존중, 관심과 같은 긍정적 관계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안녕감을 향상시켰고, 김중운과 이지혜(2016)의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예비초등교사의 주관적 안녕감을 자기개념명확성이 부분 매개한 결과와도 연결된다.

특히, 자기개념명확성은 부모의 애정적, 거부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모두 매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인진입기 인식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는 경로보다도 매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기개념명확성을 높여 성인진입기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반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기개념명확성을 떨어뜨려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떨어뜨림을 의미한다. 게다가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자기개념명확성, 성인진입기 인식의 세 변인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심리적 안녕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이 자기개념명확성이었는데, 이기재와 최해림(2009)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성인을 대상으로 분리-개별화 수준, 자기개념명확성, 비합리적 신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을 때, 주관적 안녕감을 가장 크게

설명하는 변인이 자기개념명확성이었다. 따라서 자기개념명확성은 직접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받으며,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인식인 자기개념명확성은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진입기 인식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가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대학생 자녀가 성인진입기에 대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관 분석에서도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r=.14, p<.01$)이 있었고, '불안정' 인식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녀가 부모의 양육에 대해 지지적이고 온정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성인진입기를 좀 더 변화가능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모에 대해 애정적이고 지지적이라고 지각하더라도 불안정한 지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은 자기개념명확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현재시기를 불안정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보다는 자신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기개념명확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이중매개경로의 효과에 대한 검증 결

과,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을 매개하는 경로와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을 매개하는 두 개의 이중매개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자기개념명확성을 높이고, 높은 자기개념명확성은 성인진입기 '불안정'에 대한 인식을 낮추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관분석에서 지각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단순매개효과(애정적 부모양육태도→성인진입기(불안정)→심리적 안녕감)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불안정한 현재 인식을 낮추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자기개념명확성을 높여줌으로써 성인진입기에 대한 불안정한 인식을 낮추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은 자기개념명확성을 떨어뜨리고, 자기개념명확성이 저하되면 성인진입기를 더 불안정한 것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각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성인진입기 인식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단순매개효과(거부적 부모 양육태도→성인진입기(불안정)→심리적 안녕감)도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기개념명확성에 영향을 미치고, 차례로 성인진입기 인식

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성인진입기 '불안정'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자기개념명확성을 저하시키게 되고, 자기개념명확성이 저하되면 성인진입기를 더욱 불안정한 것으로 지각하게 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여전히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진입기라는 새로운 발달적 개념이 나타난 배경 역시 산업화된 사회의 대학생들이 완전하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점차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개인의 자기개념,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현재 인식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여전히 부모로부터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성인진입기 개념이 처음 제안되었던 미국은 물론 산업화된 선진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과도기적 상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영향을 받는 정도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안선영 등(201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성인진입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인진입기 특성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에도 '타인에 대한 책임'이라는 새로운 변인이 도출된 바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좀 더 확인해 볼 부분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성인진입기 특성 변수 가운데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된 '가능성'과 '불안정성' 변수를 추가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여하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능성'과 '불안정성' 모두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지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켰다. '가능성' 변인은 상관 분석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매개경로 중에서도 애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에서만 유의미하여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성인진입기 '가능성' 인식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능성' 변인은 부모로부터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기개념명확성 세 가지 변수가 모두 투입되었을 경우엔 심리적 안녕감에 여전히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로부터 부정적 양육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시기를 변화 가능한 시기로 인식할 수 있다면 개인은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시기를 '불안정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 자체는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개념명확성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고, 부모의 양육태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정한 인식'은 매개경로 분석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영향을 받아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기개념명확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안정' 변인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자기개념명확성 변인이 함께 고려될 경우,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시기를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인식하더라도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명확한 자기개념을 갖는다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상

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성인진입기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 개입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연구에 포함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개념명확성, 성인진입기 인식이 모두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의 과정이나 양상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거부적 양육태도는 보호적이거나 위협요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로부터의 지지와 애정을 바탕으로 심리적 분리와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부모에게 직접 개입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학생 자신의 자기개념명확성이나 성인진입기에 대한 인식과 같은 개인적 요소에 개입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담이나 교육장면 등에서 성인진입기 대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탐색과 이해작업을 통해 좀 더 통합되고 안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자기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강조되어 왔는데, 자기존중감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좀 더 가변적인 반면, 자기개념명확성은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긍정적 기분을 높여주는 활동이나 개입보다 자신에 대한 탐색과 성찰, 이해를 촉진하는 개입이 보다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안정적인 고 일관된 자기개념은 부모로부터의 부정적 양육 경험이 직접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부모로부터의 부정적 양육경험으로 인해 성인진입기를 더욱 불안정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는 것을 막는 데 관여하는 보호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명확한 자기개념의 중요성은 환경적 변인이자 개인이 바꾸기 어려운 부모로부터의 부정적 경험의 영향이 미치는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상담과 교육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인진입기 주요 특성 차원들 가운데도 '정체성 탐색'이 포함되어 있듯, 과거에는 정체성 형성이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간주되었지만, 오늘날의 성인진입기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정체성 탐색은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건강하고 적응적인 성인기 진입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교육장면에서는 물론 상담을 통해 성인진입기 대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이해하고, 통합해나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작업이 여전히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다수가 입시와 대입에 치중해서 자신에 대해 탐색하는 기회나 시간 없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어쩌면 대학생 시기야말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좀 더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아직 연구가 미흡한 성인진입기 특성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성인진입기 특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최근의 국외 연구들에서도 성인진입

기 특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다양한 내재화, 외현화 문제와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다 (Lanctot & Poulin, 2018). 이처럼 성인진입기 인식에서의 차이가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된 만큼, 대학생들이 성인진입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도록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정서는 경험한 사실 그 자체의 긍정적, 부정적 속성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해가는 성인진입기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모호함으로 인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속성도 가진다. 현재 시기를 가능성의 시기로 보고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불안정한 것으로 보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인지는 개인의 인식의 차이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지치료적인 개입에서 다루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반박이나 합리적 신념으로의 변화 등을 통해 현재 시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주는 것도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위와 같은 시사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는 만큼,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제한점들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집단이 모든 성인진입기 개인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사회인으로 생활하거나 다양한 삶의 경로를 가고 있는 성인진입기 개인들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 이외의 다

양한 성인진입기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된 연구들을 보다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성인진입기 특성 중 '가능성'과 '불안정' 차원만을 사용하였는데, 추후 성인진입기 특성이 한국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다른 차원들과 심리적 변인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좀 더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부와 모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합침으로써 부의 양육태도와 모의 양육태도가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과 경로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명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매개경로들 가운데 효과크기가 유의하나 매우 작은 것들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들을 통해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윤영, 정문자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21-141.
- 김은혜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자율성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 김연화, 강문희 (2008).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6), 35-54.

- 김용희 (2012).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정서경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9), 231-256.
- 김중운, 이지혜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예비 초등교사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효과 및 낙관성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673-698.
- 문민정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수용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은식, 강승호 (2008).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관계되는 사회·동기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교육심리연구*, 22(1), 1-15.
- 문상희, 서수균 (2015).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 연구*, 16(6), 485-504.
-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399-429.
- 박지현, 이명조 (2012).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위로 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1-19.
- 백수희 (2002). 자기존중감, 자기명확성과 타인의 평가에 따른 정서적 반응.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진 (2008). 대학생의 정체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경란, 김은정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5(1), 91-115.
- 안연옥, 김병석, 김재철 (2014). 대학생의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관계: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5(6), 2451-2470.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기재, 최해림 (2009). 분리-개별화, 자기개념 명확성 및 비합리적 신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0(2),
- 이명조 (2013).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와 정서명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1), 17-35.
- 이재원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낙관성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우 (2005). 대학생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미, 이양희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4), 38-58.
- 이수현 (2005). 자기복잡성과 자기 개념 명료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효진 (2017).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물입과 영성의 조절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경자 (2005). 애착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영달, 이은지 (2010).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 자기분화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청소년복지연구*, 12(4), 91-115.
- 서경현 (2012).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대와 주관적 웰빙: 일반 성인과의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2), 137-157.
- 서진숙, 이동혁 (2010).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안녕감을 매개하는 자아정체감. *상담학연구*, 11(4), 1599-1622.
- 정주희 (2019). 대학생의 성인애착, 자기자비, 탈중심화, 반추,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제57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극복 및 인성개발 지원 방안.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480.
- Arnett, J. J. (2004a).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A cultural approach*(2nd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earson.
- Arnett, J. J. (2004b).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rnett, J. J. (201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Arrindell, W. A. & Engebretsen, A. A. (2000). Convergent validity of the Short-EMBU and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Dutch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 262-266.
- Bigler, M., Neimeyer, G. J., & Brown, E. (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396-415.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38-549.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41-156.
- Campbell, J. D., & Lavallee, L. F. (1993). Who am I? The role of self-concept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people with low self-esteem. In R. F. Baumeister (Ed.), *Plenum series in social/clinical psychology.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 3-20). Plenum Press.
https://doi.org/10.1007/978-1-4684-8956-9_1
- Deci, E. L., & Ryan, R. M.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A macrotheory of human motivation, development, and health.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49(3), 182-185.
<https://doi.org/10.1037/a001280>.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W. W. Norton.
- Francis, A. Pai, M. S., & Badagabettu, S. (2020).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erceived Parenting Style among Adolescents.

- Comprehensive Child and Adolescent Nursing*.
DOI: 10.1080/24694193.2020.1743796.
- Lancot, J., & Poulin, F. (2018). Emerging adulthood features and adjustment: A person-centered approach. *Emerging Adulthood, 6*, 91-103.
<https://doi.org/10.1177/2167696817706024>
- Lane, J. A. (2020). Attachment, ego resilience, emerging adulthood, social resources, and well-being among traditional-aged college students. *The Professional Counselor, 10*(2), 157-169.
- Leite, C., & Kuiper, N. A. (2008). Differences in Self-concept Clarity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38*, 55-64.
- Luyckx, K., De Witte, H., & Goossens, L. (2011). Perceived instability in emerging adulthood: The protective role of identity capita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2*, 137-145.
<https://doi.org/10.1016/j.appdev.2011.02.002>
- Morales-Rodríguez, F. M. Espigares-López, I., Brown, T. José, & Pérez-Mármol, J. M.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sychosocial Factors in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3), 4778;
<https://doi.org/10.3390/ijerph17134778>.
- Monica, B., & Greg J. (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396-415.
- Morrison, K., & Wheeler, S. (2010). Nonconformity defines the self: The role of minority opinion status in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 297-308.
- Negru, O. (2012). The time of your life: Emerging adulthood characteristics in a sample of Romanian high-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Cognition, Brain, Behavior: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6*(3), 357-367.
<https://bit.ly/2xhZkgG>
- Nelson, L. J., Willoughby, B. J., Rogers, A. A., & Padilla-Walker, L. M. (2015). "What a view!" Associations between young people's views of the late teens and twenties and indices of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2*, 125-137.
<https://doi.org/10.1007/s10804-015-9206-5>
- Nezlek, J. B., & Plesko, R. M. (2001). Day-to-Day Relationships Among Self-Concept Clarity, Self-Esteem, Daily Events, and Moo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2), 201-211.
- Reifman, A., Cowell, M. J., &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Theory, assessment, and application. *Journal of Youth Development, 2*(1),
DOI: <https://doi.org/10.5195/jyd.2007.359>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chnyders, C. M. & Lane, J. A. (2018). Gender, parent and peer relationships, and identification with emerging adulthood among

장희순 /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의 매개 효과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oge Counseling*,
21(3), 239-251.

Stallman, H. M. (2010). Psychological di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ison with
general population data. *Australian Psychologist*,
45, 249-257.

원 고 접 수 일 : 2020. 09. 11.

수정원고접수일 : 2020. 12. 21.

최종게재결정일 : 2020. 12. 22.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Perception of Emerging Adulthoo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Heesoon Jang

Yong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young adults was affected by the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how self-concept clarity and the perceptions of emerging adulthood mediated this causal relationship based on Arnett's the theory of emerging adulthood. We specially focused on affectionate or rejective types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possibility or instability perceptions of emerging adulthood. We performed survey research with 358 university students from six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other cities in South Korea and analyzed collected data using SPSS 25.0 and SPSS Macro. As a result, we found correlational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erging adulthood and other variables. Also, we fou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elf-concept cla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affectionate, rejective. However, we only fou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ived possibility perception of emerging adulthood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ffectionate parental rearing attitudes. Finally, we found a sequential mediation effect that the self-concept clarity and then perceived instability perception of emerging adulthood affec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jective parental rearing attitudes of emerging adulthood. Based on resul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counseling service and psychological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faced emerging adulthood were discussed.

Key words : Emerging adulthood, 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IDEA), Psychological well-being, Self-concept clarity,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